

## 대한건축사협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annot be stayed on as it is

건축사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우리 협회”라 한다)가 40년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26일 제38회 정기총회 이후 임원선출에 대한 감사의 문제 제기로 비화된 일련의 사태가 급기야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 7인과 감사 1인의 직무집행정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0월 1일 긴급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세훈 회장이 불신임되고 이영복 감사가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의 전말에 대해서는 서울건축사신문, 부산건축사신문 등에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어 웬만큼 회원들께서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날씨마저 잔뜩 흐린 임시총회날 회의장 분위기는 자못 비장하고 무거웠다. 그런데 의장석에 올라선 이세훈 회장이 법률자문 변호사 2인을 회의장에 참석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다수 대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나중에는 부의안건 순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야 했다.

그리고 ‘회장 신임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도 의장역할을 고수하려는 이회장과 임시의장을 내세우려는 대의원들 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대의원들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회장 신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장 불신임 건’으로 수정 결의한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에 불인 결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세훈 회장이 퇴진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事必歸正, 死則生 生則死, 小倉大失’ 이런 글귀들이 언뜻언뜻 머리를 스친다. 이회장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개인적 불행이 우리 협회가 제도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실제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협회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환골탈태(換骨奪胎),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선 차분한 마음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첫째, 협회 정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례나 관행이 우리의 헌법적인 정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정관이 바뀔 수

있고 또 절차에 따라 바꾸면 된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협회 내의 일은 협회 내에서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자.**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도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협회 그리고 건축사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셋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이나 고문, 사무직원 그리고 시·도 건축사회장이나 대의원들은 회원 모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그 보다는 명예욕이나 감투욕에 사로잡혀 일반회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때로는 군림하려 드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지도자에게 회원들은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넷째, 일반 회원들도 협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는 흔히 협회 발전을 위하여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가 되면 안 되겠는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봉사와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이 협회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협회가 곧 나 또는 우리 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된다. 우선 관심부터 가져보자. 특히 회원 2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경우는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의 일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와 같은 불상사를 자초했던 것이다. 스스로 깊이 반성할 일이다. 무관심과 방임주의가 우리 협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책임을 명심하자.

**다섯째, 말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은 무성한데 내용이 없고 더욱이 앞장서서 실천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솔직한 우리들 모습이다. 자기과시적인 화려한 말잔치나 소영웅주의는 결코 협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불만을 일삼고 남을 비방하거나 트집을 잡는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다수의 회원들이 아직은 많아 그나마 희망적이다.

**여섯째, 개인적인 정리(情理)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협회를 멍들게 했고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단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사분오열된 모습으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 협회가 기사화생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려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

**새롭게! 힘차게! 도약하자!**

무한경쟁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엄한 세계화시대에 더 이상은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된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보자.

그리고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21세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끝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물러났지만 투명하고 열린 협회를 지향하려 했던 이세훈 회장, 원리원칙을 고수하려 했던 이영복 감사 두 분의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줄 믿는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송수구 회장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권한보다는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잔여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비상한 각오로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협회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틀이나마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ㄷ